

# 사설

## 교계-공단 협조체제를

그동안 불교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엄대우씨가 새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엄씨는 임명을 받고 즉시 불교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6개월에 이르는 대불교 국립공원 정책을 발표하여 불교계의 이해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단지도자를 만나 이 정책공약들을 전달했고, 전임자가 불교와 관련된 공인관리업무에서 많은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 정식 사과까지 했다.

우선 엄대우 선임 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박수를 보낸다. 불교계와 공개적으로 약속한 여섯가지 정책은 하루속히 구체화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불교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위한 의사소통기구의 구성이다. 불교계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단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정변경을 내세워 취임공약을 잘 지키지 않는 일이다. 지금까지 공인 정책에서도 이런 공약파기가 자주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선임 관리공단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립공원과 불교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고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사찰이 모여있는 국립공원, 도 시공원은 본래의 목적인 자연환경보존에 역점을 두고,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공인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인임장료의 지급문제, 사찰경내지 확보문제, 공인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 불교계의 의견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우선 관리공단은 장기적으로는 공인임장료를 폐지하되, 과도기적으로는 임장료수입은 공인내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복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찰이 공인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공인용

지의 상당부분이 사찰소유 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와함께 점차 공인내에서의 사찰경내지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초기 공인법제정 그 당시 관계당국과 합의한 사항임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사찰주변을 공인으로 지정하여 신성해야 할 수도 도랑이 관공지로 전락했다는 하한 사찰이 마치 공인의 일부가 되어, 즉 사찰이 공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려 사사건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찰의 보수, 복원은 물론 화장실이나 제도로 짓지 못하는 실정을 헤아려야 한다. 종교시설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구역안에서는 공인관리청의 허가없이 증 개축이 허용되어야 하고 일반 건축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위원회에 당해 사찰 주지 등 불교계 인사가 반드시 50%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각종 공원에 있어 사찰은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찰인들이 공원으로 지정되기까지 오랜 세월동안 원시성의 수려한 자연경관보존에 기여해 왔으며, 누구보다 당해 불교계는 공인관리에 대한 애착이 절실한데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불교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지키는 국가사임임을 명심하고 공인정책을 바르게 세워 실천해야 할 것이다. 1600여년 이상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우는데 요람이 된 전통사찰을 보존 발전시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장 중 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 엄 신임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감사 토지수용 철회등 6개 공약 전달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공인관리 업무에 불교계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엄대우(51) 신임 이사장은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 6가지의 공약 사항을 전달했다. 엄 이사장은 공약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원칙으로 불교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장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엄 이사장은 또 △그간 말씀을 빛어 온 계룡산 감사의 청소년 야영장 건설 추진과 관련 수행 환경의 보존 차원에서 감사의 토지 수용을 철회할 방침이고 △사찰 개보수와 신축을 위한 형질변경 신청 등에 대해 행정편의주의 중심의 공인 운영을 탈피 불교계에 불만이 없도록 할 것이며 △공인 관리소장의 임명에 있어 종교적 균형감과 환경 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임명 하되 불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공단본부에 사찰 등의 문화재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

를 추가 선정하는 등 불교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7월중 관광료 사찰운영위원을 초청하여 공인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설명 및 여론수렴의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엄 이사장은 6일 취임식에서도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국립공인에는 유망 사찰과 유적이 많아 불교계와 협의할 업무가 많을 것이므로 불교계와 관련된 업무는 최대한 협조하여 우리 문화재를 잘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 이사장은 6일 취임식 직후 교계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종교와 관련 불교계가 취임을 반대한 것과 관련 “군산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며 개신교 성직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며 집사직을 맡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엄 이사장은 중앙대 문과대학과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을 졸업했다. 녹색교통운동 중앙이사과 새정치국민회의 환경특위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환경정보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임연태 기자)



엄대우 신임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6개항의 공약사항을 전달했다.

## “한-일 불교도협력 지구촌 평화”

### 조계종 총무원장 영평사서 한일불교문화대회 열어

제19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조계종 본산 영평사에서 개최됐다.

대회에는 한국측 대표단 80여명과 일본측 대표단 1백여명이 참가 양국 불교의 문화 교류와 우의를 다졌다. 13일 환영 만찬을 열어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영평사 주지인 천수익 주지(天壽益)가 “한일 양국에서의 선사상의 전통을 통해 ‘이 대회를 계기로 양국 불교도의 상호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우호친선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한 이래 양국 불교는 긴밀한 협조를 해 왔다”며 “이번 대회에서 양국불교가 경제난

과 도덕의 타락, 환경 파괴, 핵전쟁의 위협 등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측의 인환스님(경국사학주)이 ‘한 일 선사상의 동원’과 일본의 마마후지센다카(天藤全孝)스님이 ‘한 일 양국에서의 선사상의 전통에 대해서’를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을 가졌다. 강연에서 인환스님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양국의 선사상이 발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두 나라의 선 수행자들이 자주 방문하며 함께 수행을 경험하며 서로의 선사상을 이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엄이사장 전력시비 국회 환경노동위

13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담의원들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위반제로 발급형을 선고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엄대우이사장의 전력을 놓고 업무보고를 거부해 파행을 기록했다.

두차례 정회 끝에 아담의원들은 엄이사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며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결의문을 냈다. 엄이사장은 “문제의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안기부 지시에 의한 정치적 목적으로 지난 93년 3월 구속돼 발급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조계종 행자등록 학력미달자 심의

조계종 교육원(원장 압도)이 처음으로 실시한 행자등록 신고 학력미달자 사전 심의가 1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교육원에 신고를 마친 초등학교 중퇴~고등학교 중퇴 남녀합계 46명 가운데 28명이 참가, 수학능력시험과 출가동기·발심상태·예경·행해 등의 종합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의는 합격자는 해당 교구본사로 개별 통보되며, 제15기 행자교육원 입방자격을 갖게 된다. 심의에서는 교육부장 향적스님 불학연구소장 밀원스님 연구국장 정해스님 등이 개별 면접과 적성여부를 심사했다.

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달 말경 중앙신도회 발전안을 만들기 위한 실행단체 간담회도 개최기로 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18일 사무실을 서울 견지동 68번지 서충빌딩3층으로 이전했다. 733-7277.

## “중신회” 직무대행체제로

조계종중앙신도회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송재권회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

신도회는 회장직무대행에 김한곤 부회장(7교구 신도회장, 전 능수산부처관)을, 부회장과 각 교구 신도회장을 비상대책위원

### 인터뷰 중신회 회장 직무대행 김한곤씨

## “교구 분담금 신설 검토”

김한곤 조계종중앙신도회 회장대행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루빨리 정식 회장체제로 복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행체제는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대행체제가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상화 계획을 세우겠다. 이와함께 중앙신도회 운영방안을 함께 마련키 위해 교계 주요 실행단체들과 토론회를 열겠으며,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총무원에 제출 하겠다.

▷무엇보다 재정자립이 가장 큰 현안인데,



행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교구 신도회 분담금 제도의 신설도 제안하겠다.

▷총무원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총무원과 신도회의 의견을 조정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상부상조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자비를 실천하고 불교를 중흥하겠다는 방향에는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없다.

(정성은 기자)

## 여야 지방선거 불심잡기 ‘가시화’ 조계종 ‘공명선거’ 촉구 성명

6월4일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불심잡기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18일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역감정이나 금권선거, 인신 공격이나 상호비방보다는 지역 경계를 살리고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이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성명에서 각 당 후보자들은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유권자는 지역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6·4 선거를 앞두고 1일 고건 서울시장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명예총재들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했으며 한나라

당은 불교대책위원회에 합중한 의원을 임명하고 지난해 연말 대선때 가동했던 불교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선당도 나름대로의 불교관련 조치를 동원 ‘불심잡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조계종 본말사 주지 연수 지역별 5차례 실시

불기 2542년도 조계종 본말사 주지 연수가 21일~7월 2일까지 각지역 본말사별로 총 5차례 걸쳐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본말사 주지연수는 사찰에서 주지의 역할과 지도력 제고방안·21세기 수행자상과 성직자상·IMF시대 불교계 과제와 역할·불교문화 21세기 문화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가출청소년들의 등대가 되어...

737-8881

# 공 고

## 불기 2542년도 본·말사주지 연수교육 소집

종단은 소임자스님들의 소양을 높이며 21C의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본말사간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교육법 제 109호 1항에 의거하여 매년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는 광역별(도별)연수를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연대감을 공고히 하며 I.M.F체제를 대처하여 기획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불기 2542년도 본말사 주지 연수에 빠짐없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 1)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 본·말사 주지사님
  - 2) 산내 암자 원주스님 및 재산관리인(스님에 한함)
  - 3) 불기 2542년도 본사 7직 국장스님 연수회 불참자
  - \* 교령(만 65세 이상)으로 연수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해 말사 소임자중에서 대리참석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참석일 경우 연수참가 신청시 대리참석임을 밝혀야 합니다.
- 교육기간**
  - 1) 1박 2일(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 연수생스님 준비물**
  - 1) 법복(상상, 가사) 2) 세면도구
- 연수장도착**
  - 당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연수장 도착(단, 경남권은 오전 10시까지)
- 교육관리**
  - 1) 수료자 : 종단인사에 반영(미수료자는 주지직에 재임할 수 없음)
  - 2) 교육시간 2회이상 불참시 교육수료를 인정하지 않음
- 연수일시, 장소 및 접수**

차레	본 사	연수일자	장 소	접 수 일	접수처
1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5월 21일~22일	통도사	5월 11일까지	각 교구본사  *직할교구는 교육원
2	직지사,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고운사	6월 1일~ 2일	경주 코오롱호텔	5월 20일까지	
3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6월 10일~11일	지리산 프라자호텔	6월 1일까지	
4	직할교구, 운주사, 신홍사, 월정사, 봉선사	6월 16일~17일	중소기업 개발원 연수원	5월 30일까지	
5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7월 1일~ 2일	주택은행 연수원	6월 20일까지	

\* 23교구본사 관음사 본말사주지 연수는 추후 별도 실시 합니다.

■ 문의처 :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전화 : 027732-4923/4>

불기 2542년 5월 일

##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압 도